차 례

제 1 과
붉 은 별

1950년 6월 25일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놈들은 우리 나라에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행복이 넘치던 조국땅우에 커다란 위험이 닥쳐왔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와 전체 인민을 전쟁승리에로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용감한 인민군대아저씨들은 원쑤를 무찌르며 남으로남으로 내달렸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아침저녁으로 최고사령부 보도를 들으시면서 벽에 걸린 조선지도에 붉은별을 붙여나가시였습니다. 해방된 남반부의 도시와 마을이 하나둘 늘어가면 지도에도 붉은별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전선에서 돌아오시던 길에 잠시 아드님께 들리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립던 아버님의 품에 달려가 안기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아드님이 서계시던 지도앞으로 다가가시여 무엇을 하고있었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해방된 남녘의 도시와 마을들을 찾아 붉은별을 붙여나가고있다고 말씀드리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아드님께 인민군대가 어디까지 해방하였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김천, 왜관까지 해방하였습니다.

지금 인민군련합부대들은 락동강을 건느고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대전해방전투때 인민군대가 미군사단장 띤이라는 놈을 사로잡은 이야기도 신이 나게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부산까지 밀고나가면 더 큰 놈도 잡을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시였습니다.

아드님의 이야기를 듣고계시던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 방에 대단한 전선사령관이 있구만. 벌써 부산해방작전까지 준비하고있단 말이지.》 하시며 호

탕하게 웃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나어린 아드님께 앞으로도 싸우는 조선의 아들답게 살며 배워야 한다고 이르시였습니다.

《아버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씩씩하게 대답올리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아드님의 모습에서 더 큰 힘을 얻으신듯 걸음을 힘있게 내짚으며 떠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미제가 전쟁의 불을 질렀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굳게 믿고계시였습니다.

제 2 과
놓아주신 꾀꼴새

전쟁의 나날이 흘러가던 어느날이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공부를 하고계시다가 갑자기 부르는 동생의 목소리에 자리

에서 일어서시였습니다.

방에 들어서는 동생의 손에는 꾀꼴새가 쥐여져 있었습니다. 댁에 왔던 한 아저씨가 잡아준것이였습니다.

동생은 그 새를 볼에 대고 《꾀꼴새야, 오빠랑 나랑 함께 살자. 응? 그리고 넌 매일 고운 노래를 불러야 해.》라고 말하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새의 다리에 끈을 매달라고 **김정일**대원수님께 드리였습니다.

새를 받아드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한동안 새를 쓸어주시다가 동생에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이 꾀꼴새를 놓아주자. 훨훨 날아가라구.》

《싫어.》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시며 타이르시였습니다.

《이 새도 엄마, 아빠가 있고 동생도, 오빠도 있단다. 얼마나 보고싶겠니.

이 새를 잃어버린 꾀꼬리 엄마랑, 아빠랑 지금 막 울면서 찾아다닐게다.》

그 말씀에 동생은 눈물이 그렁해서 새를 놓아주자고 고개를 끄덕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동생의 손목을 꼭 잡고 창가로 가시였습니다.

이때 꾀꼴새를 잡아준 아저씨가 왔습니다.

그는 **김정일**대원수님께 꾀꼴새는 보기 드문 새인데 왜 놓아주시려는가고 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를 보시며 희귀한 새니까 더구나 놓아주어야 해요, 비행기소리, 폭탄소리에 놀라서 숱한 새들이 다 날아가버렸는데 우리까지 잡으면 산에 새들이 더더구나 없어지고말거예요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동생의 두손바닥우에 새를 올려놓고 높이 쳐드시였습니다.

꾀꼴새는 하늘을 향해 포르릉 날아올랐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얼굴에도 동생의 얼굴에도 밝은 웃음이 피여났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조국의 새 한마리도 소중히 여기는 뜨거운 마음을 지니고계시였습니다.

제 3 과
장자산에 높이 울린 글소리

전쟁이 일어난 그해 가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평양을 떠나 얼마동안 장자산 설매골에 가계시였습니다.

미제침략군놈들은 기승을 부리며 북으로 미친듯이 밀려들고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습을 중단하지 않으시였으며 더 열심히 공부하시였습니다.

그때 설매골에는 아직 전기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밤이면 등불을 켜놓고 공부하시였습니다.

손수 짜놓으신 학습일과표대로 복습도 하시고 다음날에 배울 내용도 미리 익히시였습니다.

어느날 한 일군이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하시는 **김정일**대원수님의 건강이 걱정되여 어서 주무셔야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아버지장군님께서

는 이 깊은 밤에도 미국놈들을 몰아내기 위하여 전선을 지휘하고계시는데 어떻게 일찌기 잘수 있겠는가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아버님처럼 훌륭한 일군이 되라고 하신 어머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도 용기를 내여 공부를 잘하도록 도와주시였습니다.

웃방에 걸려있는 칠판앞에서 선생님이 되시여 글도 배워주시고 이야기도 들려주시였습니다.

언제나 새 힘이 솟구치게 하는 **김정일**대원수님의 이야기는 동무들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미제원쑤놈들의 폭격기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려올 때면 같이 공부하던 아이들은 겁이 나서 집으로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무서워할게 없다, 이런 때는 우리가 더 크게 소리를 내여 글을 읽고 노래를 불러 미국놈의 비행기를 쫓아버려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책을 펼쳐드시고 선창을 떼시였습니다.

산산 백두산

높이 솟은 백두산

…

그러면 아이들도 기운을 내여 따라 읽군 하였습니다.

아이들의 힘찬 글소리는 미국놈비행기소리를 짓누르며 장자산의 하늘가에 크게 울려갔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전쟁의 어려운 속에서도 승리할 래일을 굳게 믿으시고 열심히 공부하시였습니다.

제 4 과
한그루의 나무라도 죽여서는 안된다

설매골을 둘러싼 장자산의 봉우리들과 골짜기들에는 여러가지 나무들이 많았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 나무

한그루, 한그루를 귀중히 여기시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어느날 같이 생활하시는 일군들과 함께 장자산 골짜기로 들어가시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문득 한곳에서 걸음을 멈추시였습니다.

큰 흙덩이가 덩그렇게 놓여있는 그곳에 어린 소나무 한그루가 겨우 붙어있었던것입니다. 분명 장마비에 떠내려오던 나무였습니다. 애솔나무는 뿌리가 드러나서 시들어가고있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곧 흙을 날라다 소나무뿌리에 덮어주시고 물을 주시였습니다.

그 나무만이 아니였습니다.

이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여러그루의 애어린 소나무들을 떠서 양지바른 산기슭에 옮겨심으시였습니다.

곁에 있던 일군들은 장자산에 큰 나무들도 많고 또 전쟁시기인데 작은 나무 몇그루가 무엇이 그리 커서 그처럼 정히 옮겨심으실가 하고 의아해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보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이 산에 있는 나무를 지켜야 하며 한그루의 나무라도 죽여서는 안됩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지금 미국놈들이 산에 폭탄을 마구 떨구어 나무를 불태워버리는것만 해도 참을수 없는데 말라죽는 나무를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수 있는가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언제나 한그루의 나무나 한포기의 꽃과 풀을 사랑하는것이 조국과 인민을 위한 일이라는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모범을 따라 그후 동무들도 대원수님과 함께 장자산골짜기로 오르내리며 여러그루의 죽어가는 나무들을 옮겨심었습니다.

전쟁의 불길속에서 뿌리내린 그때의 나무들은 오늘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애국의 마음을 전하며 푸르러 설레이고있습니다.

제 5 과
《아동중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장자산을 떠나 어느 한 농촌마을에서 생활하실 때였습니다.

이곳에서도 어른들은 전선을 돕기 위하여 밤낮없이 일하고있었습니다. 그러나 추운 겨울이라 아이들은 집안에서 장난으로 시간을 보내고있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마을아이들이 늘 집에만 꾹 박혀있는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였습니다.

어느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을 만나시여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지금 전선에서는 아버지, 형님, 누나들이 피를 흘리며 싸우고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니.

우리는 싸우는 조선의 어린이들답게 용감하고 씩씩하게 살아야 해.》

김정일대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이들은 추운 겨울이라고 집에만 박혀있던 자신들을 뉘우쳤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마을아이들이 용감하고 씩씩하게 생활할수 있도록 일과표를 짜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과표를 《미국놈때려부시기일과표》라고 이름지으시였습니다.

일과표에는 아침달리기와 체조, 과외학습, 마을사람들속에 최고사령부의 보도와 전선소식을 알려주는 일, 인민군대아저씨들에게 편지쓰기, 가창대활동, 군사놀이, 부모들의 일손돕기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날부터 일과표대로 여러가지 활동을 몸소 조직하고 이끄시였습니다.

마을은 아이들로 들끓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을사람들은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이끌어나가시는 아이들을 가리켜 《아동중대》라고 불렀습니다. 군대처럼 규률있게 생활한다는 뜻에서였습니다.

아침부터 씩씩하게 생활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마을사람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동중대》의 생활이 째여들어가자 몇몇 아이들이 일과생활에 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어떤 집들에서는 추운데 밖에 나가면 병이 생긴다고 아이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한 할머니가 **김정일**대원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자기 손자는 원래 몸이 약한데다가 감기까지 왔으니 봄에 나가 내보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웃음을 지으시며 할머니에게 아침체조나 군사놀이에 나온다고 앓는 것이 아니예요, 추운데서 단련해야 병을 이겨내는 힘도 생기고 몸도 튼튼해집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우리들이 함께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면서 감기를 꼭 떼드리겠으니 마음놓고 내보내라고 친절하게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진정어린 말씀에 할머니는 깊이 감동되여 돌아갔습니다.

그리하여 다음날부터 그 아이도 군사놀이와 달리기를 하면서 몸단련을 잘하여 얼마후에는 감기를 모르는 건강한 아이로 되였습니다.

《아동중대》대렬은 훨씬 늘어나고 마을사람들은 《아동중대》에 자기 아이들이 속해있는것을 자랑으로 여기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아이들이 싸우는 조선의 아들딸답게 용감하고 씩씩하게 생활하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제 6 과
그림편지

전쟁이 한창 벌어지던 주체40(1951)년 봄 어느 날이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교에서 돌아오시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 편지를 쓰시려고 책상우에 흰종이를 펴놓으시였습니다.

이때 동생이 곁에 와서 물었습니다.

《오빠, 또 아버지께 편지를 쓰나요?》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시며 그렇다고 대답하시였습니다.

동생은 부러운듯 자기도 아버지께 편지를 썼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글을 갓 배우기 시작한 동생은 아직 편지 같은것을 쓰지 못했던것입니다.

그러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아버님께 편지를 쓰고싶어하는 그 마음이 기특하시여 동생의 손에 연필을 쥐여주시고 자신의 손으로 덧싸쥐시였습니다.

《그래, 아버님께 편지를 쓰자. 뭐라고 쓰겠니?》

고개를 갸웃거리던 동생은 아버지가 막 보고싶어 못 견디겠다는것과 아버지께 빨리 가고싶다는 것을 쓰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머리를 가로저으시며 그런걸 편지에 쓰면 어머님없이 우리가 외로와하는줄 아시고 아버님께서 근심하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린 편지 한장을 써도 아버님께서 그 편지를 보시고 즐겁게 웃으시게 써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습니다.

《그럼 편지를 어떻게 써야 하나요?》

동생은 연필을 쥐였던 손으로 턱을 고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는 동생을 바라보시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좋은 생각이 떠오르신듯 밝은 웃음을 지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네 손을 그려서 아버님께 보내드리자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동생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손을? 야 우습네, 그것도 뭐 편지나?》

《네 손이 이렇게 큰것을 보시면 아버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이렇게 말씀하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동생의 고운 손을 흰종이우에 펴놓게 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연필로 손모양을 본따나가시였습니다.

연필끝이 닿을적마다 간지러운지 동생은 캐득캐득 웃으며 손을 움츠렸습니다.

그러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러지 말아. 아버님께서 보실거다. 똑바로 잘 그려보내야 아버님께서 기뻐하시지.》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동생은 몸가짐을 바로하고 손을 꼭 댄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동생의 손을 다 그리시고나서 그림밑에 《아버지, 나의 동생은 이렇게 자랐습니다.》라고 쓰시였습니다.

며칠후 최고사령부의 깊은 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아드님의 편지와 함께 이 그림편지를 보시며 온갖 걱정을 잊으신듯 즐겁게 웃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 기쁨만을 드리시려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마음은 이처럼 뜨거우시였습니다.

제 7 과
군사놀이에서 규률을 세우시려고

추운 겨울 어느날이였습니다.

군사놀이를 하시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점심시간이 되여오자 모두 집에 가서 점심

을 먹고오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한 아이에게 그동안 보초를 서라는 임무를 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보초병이 자기 자리를 떠나지 말고 보초를 잘 서라고 그 둘레에 둥그렇게 금을 그어놓으시였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와보시니 보초병이 자기 자리를 비우고 없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길로 그 아이를 찾아가시여 왜 자리를 떴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보니 일은 이렇게 된것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김정일**대원수님으로부터 보초를 서라는 임무를 받고 처음에는 보초를 잘 서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지나니 발이 시리고 배도 고팠습니다. 몇걸음이면 가닿을 집에서는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릴것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모든것을 참고 명령대로 보초를 섰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

대시간을 기다리면서 줄곧 집쪽으로 눈을 팔고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그옆을 지나가던 한 어머니가 추운데 나무총을 들고 혼자 서있는 그 아이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기가 **김정일**대원수님께 말씀드려주겠으니 집에 가서 점심도 먹고 몸도 녹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여 보초병은 자리를 떴습니다.

그 어머니는 **김정일**대원수님과 옆집에 살면서 허물없이 대하던 사이여서 자기 말이면 받아주시리라고 생각했던것입니다.

그런데 일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보초병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으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곧 옆집어머니를 찾아가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 어머니에게 보초를 서는것은 군사규률이니 그 누구도 마음대로 보초병을 돌려보낼수 없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그 어머니는 자기의 잘못을 느끼게 되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동네사람들은 **김정일**대원수님께서 군사놀이를 하실 때면 거기에 들어간 아이들을 마음대로 불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사놀이에 방해가 되지 않게 길도 에돌아다니군 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그 누구도 군사놀이규률을 어길수 없다는것을 깨우쳐주시였습니다.

제 8 과
선생님을 대신하시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다니시던 학교의 선생님이 뜻하지 않은 병으로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선생님이 올 때까지 집에서 놀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이 일을 두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생각이 깊

으시였습니다.

그러시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에게 이제부터 우리끼리 서로 배우면서 공부를 계속하자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동무들은 너무도 뜻밖이여서 우리끼리 어떻게 공부하겠는가고 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선생님만 기다릴수 없다. 하루라도 우리는 공부를 그만둘수 없지 않니.》

그러시면서 지금 전선에서는 매일과 같이 적을 쳐부시는 전투가 벌어지는데 우리가 어찌 학습전투를 그만둘수 있는가고 일깨워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을 모두 제자리에 앉게 하시고 칠판앞에 나서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그날 배울 내용을 동무들에게 설명해주시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김정일**대원수님께서 계시는 방에서는 오래도록 불빛이 꺼질줄 몰랐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밤을 지새우시며 다음날

동무들에게 배워줄 학습내용을 미리 익혀나가시였습니다.

그리하여 국어나 산수시간은 말할것도 없고 노래시간에는 노래를 배워주시였으며 그림그리기시간에는 그림그리기를 배워주시면서 수업시간표대로 동무들의 학습을 이끌어나가시였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이 없는 때에도 **김정일**대원수님의 지도밑에 이렇게 학습을 계속할수 있었습니다.

얼마후 새 선생님이 배치되여왔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하나하나 말씀하시였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얼마만큼 알고있는가 시험도 쳐보고 질문도 해보다가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그동안 배운 내용을 다 환히 알고있었던것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선생님을 대신하시여 동무들의 학습을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제 9 과
한 군관아저씨를 위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계시던 곳에 한 인민군군관아저씨가 며칠간 머물러있던 어느 겨울날 저녁이였습니다.

산수시험공부를 하려고 책을 펼치시였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군관아저씨생각이 나시여 그의 방으로 가시였습니다.

그런데 군관아저씨가 찬 방에 홀로 누운채 신음소리를 내며 앓고있는것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들어오신것을 안 군관아저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얼른 그를 자리에 눕게 하신 다음 어디가 아픈가고 다정히 물으시였습니다.

그는 괜찮다고 하며 시험이 다 끝났는가고 물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제 한 과목만 치면 된다고 하시며 군관아저씨의 이마를 짚어보시였습

니다.

이마는 불덩어리처럼 뜨거웠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아저씨의 손을 꼭 잡으시고 열이 몹시 나는데 왜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고 찬 방에 혼자 누워계시는가고 걱정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외투를 더 씌워주시고 찬바람이 스며들세라 이불깃을 꼭꼭 여미여주시고서야 조용히 방을 나서시였습니다.

(어리신 나이에 어쩌면 그리도 생각이 깊으실가！)

군관아저씨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저도모르게 잠들었습니다.

얼마쯤 있다가 깨여나니 싸늘하던 방안이 여간만 훈훈하지 않았습니다. 방바닥을 짚어보니 뜨겁게 달아오르고있었습니다.

그는 휘청거리는 몸으로 밖에 나가보았습니다.

눈보라가 울부짖는 그밤에 누구인가 아궁이앞에 앉아 불을 때고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던 군관아저씨는 깜짝 놀라 그 자

리에 굳어졌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불을 때고계시였던것입니다.

군관아저씨는 급히 다가서며 더는 이러시지 말아달라고 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앓는 사람이 땀을 내야지 찬바람을 맞으면 어떻게 하는가고 나무라듯 말씀하시였습니다.

군관아저씨는 자기는 아무 일 없으니 어서 돌아가 시험공부를 하시라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아저씨가 찬 방에서 앓고있는데 시험공부가 되겠습니까? 내 걱정은 말고 어서 방에 들어가십시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아저씨를 부축하시고 방에 들어가 자리에 눕히신 다음 그길로 의사를 데리러 갔다오시였습니다.

깊은 밤 의사의 치료를 받고난 군관아저씨는 감격의 눈물을 머금고 **김정일**대원수님께 자기때문에 시험공부를 하지 못해 어떻게 하시겠는가고 하였

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환히 웃으시며 아저씨가 낫기만 하면 시험에서 5점을 맞는것보다 더 기쁘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한 군관아저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시며 따뜻이 보살펴주시였습니다.

제 10 과
《나도 이제는 최고사령부에 와있겠습니다》

전쟁의 불길속에서 아버님과 헤여져 생활하시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주체41(1952)년 6월 아버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동생과 함께 그달음으로 길을 떠나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도착하시였습니다.

그처럼 그리웁던 아버님을 뵙는 순간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아버지！》 하고 목메여 부르시며 아버님의 품에 와락 안기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제분들을 꼭 껴안아주시며 말씀하시였습니다.

《먼길을 용케 왔구나！ 그래 그사이 잘 있었느냐? 아버지가 보고싶었지, 아버지도 너희들이 보고싶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마음을 다잡으시고 아버님께 정중히 인사를 올리시였습니다.

그사이 몰라보게 자라신 자제분들을 보시는 **김일성**대원수님의 마음은 몹시 기쁘시였습니다.

이때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밝게 웃으며 물으시였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빨리 크면 인민군대가 되여 아버지곁에서 미국놈과 싸울수 있지요.》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크게 웃으시며 그래, 그렇게 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식사가 끝났을 때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생각해오시던것

을 아버님께 말씀드리시였습니다.

《나도 이제는 최고사령부에 와있겠습니다.

…

나는 아버님께서 가시는 길이라면 그 어디이고 함께 가고싶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평양에 가면 매일 미국놈 비행기가 날아와 폭격하기때문에 밥도 방공호안에서 먹고 잠도 방공호안에서 자야 한다고 하시며 그래도 좋은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아버님과 함께 어려운 싸움길을 걸으실 드팀없는 결심을 말씀드리시였습니다.

그러자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아드님을 대견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옳다, …네가 잘 생각하였다. 최고사령부에 와서 나와 함께 있자. 그래서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영웅적인 투쟁모습을 더 똑똑히 보고 체험할 때 미국놈들이 불지른 이 전쟁으로 인하여 겪는 인민의 아픔을 진실로 느끼게 될것이고 또 조국과 인민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될것이다.》

그러시면서 어려운 길을 걸어보아야 담도 커지

고 의지도 굳세여진다고 하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어 《네 결심대로 아버지와 함께 평양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이렇게 되여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아버님께서 계시는 최고사령부에서 생활하게 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가시는 길이라면 전쟁의 불비속도 함께 헤쳐갈 굳은 마음을 지니고계시였습니다.

제 11 과
공중전을 보시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계신 곳으로 오신 바로 그날이였습니다.

그곳 하늘에 갑자기 미국놈비행기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비행기들과 미국놈비행기들사이의 치렬한 공중전이 벌어졌습니다.

그 시각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어느 한 회의실에서 회의를 지도하고계시였습니다.

아버님의 안녕을 지켜 스스로 회의실 꼭대기에서 항공감시를 하시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급히 아버님께 정황을 보고드리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회의참가자들에게 나가보자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적기들은 우리 비행기의 꼬리를 물려고 악착스럽게 달려들고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비행사들은 높은 비행기술로 옆으로 돌입하면서 사격을 들이댔습니다.

순간 직통으로 얻어맞은 적기 한대가 검은 연기를 뿜으며 땅으로 곤두박혔습니다.

참으로 통쾌한 장면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만세를 부르시며 인민군비행사들이 정말 용감하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습니다.

이때 적비행기들이 또 연방 날아왔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아드님께 우리 비행기가 몇

대이고 미국놈비행기는 몇대인가고 물으시였습니다.

《우리 비행기는 두대이고 미국놈의 비행기는 스무대입니다. 그러니 2대 20입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군대가 이겨낼것 같은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그러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예. 꼭 이깁니다.》라고 대답하시였습니다.

《어떻게 이길수 있느냐?》

《우리 비행사들이 용감하기때문에 꼭 이깁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더욱 힘있게 대답하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적이 10배나 되는데도 우리가 이길수 있겠는가고 거듭 물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미국놈들은 남의 집에 뛰여든 강도이기때문에 주인이 겁을 먹지 않고 용감하게 싸우면 미국놈이 10배가 아니라 100배가 되여도 싸워이길수 있다고 대답올리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나어린 아드님이 너무도 대견하시여 《그럼, 이기지. 이기구말구!》라고 우

렁우렁한 목소리로 말씀하시였습니다.

드센 사격으로 여러대의 적기들을 떨군 우리 비행사들은 도망치려는 미국놈비행기들을 바다로 끌고나가 족쳤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날 미국놈들이 아무리 날쳐도 우리 인민군대는 반드시 이긴다는것을 다시금 깊이 느끼시였습니다.

제 12 과
한 갈림길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모시고 여러곳을 찾으시며 평양으로 나오시던 어느날이였습니다.

산굽이를 돌아달리던 승용차앞에 두갈래의 길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곧바른 넓은 길이였고 다른 하나는 좁고 험한 길이였습니다.

갈림길에서 경비를 서고있던 호위대원이 손을 들어 큰길쪽을 가리켰습니다.

운전수는 호위대원이 가리키는쪽으로 차머리를

돌리려고 하였습니다.

그 순간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고계시던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큰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자고 하시였습니다.

뜻밖의 말씀에 운전수는 차를 멈춘채 망설이였습니다. 호위대원도 영문을 몰라 달려왔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차를 좁은 길로 몰라고 하시였다는것을 알게 된 호위대원은 놀라며 말씀드렸습니다.

《장군님, 소로길은 아주 험합니다. 그리고 경비조직도 되여있지 않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길이 험하고 경비조직이 되여있지 않아도 좋으니 차를 좁은 길로 몰라고 거듭 말씀하시였습니다.

호위군관들도 운전수도 잠시 어찌할바를 몰라했습니다.

이때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말씀하시였습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 말씀하신 길로 무조건 가야 합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 가시는 길은 무조건 옳은 길입니다. 빨리 이 길로 차를 몰아야 하겠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잠시나마 망설였던 자신들을 뉘우치며 좁은 길로 차를 돌리였습니다.

승용차가 얼마쯤 달렸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으며 수십대의 미제원쑤놈들의 비행기들이 날아들었습니다.

그것들은 방금 승용차가 지나가게 되여있던 큰길쪽에 마구 폭탄을 퍼부어대는것이였습니다.

폭격이 얼마나 심했던지 딛고 선 땅이 다 와릉와릉 울렸습니다.

같이 가던 호위군관은 온몸이 굳어지는것 같았습니다. 만약 길을 바꾸지 않았더라면 어쩔번 했는가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폭격이 끝나고 차에서 내리셨던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다시 차에 오르시였을 때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호위군관에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이상합니다. 꼭 적들이 알고 달려든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간첩놈들이 기여들지 않았다고 말할수 없으니 아버지장군님을 더 잘 모셔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후에 이날의 폭격은 미제놈들과 손을 잡은 간첩놈들에 의하여 감행되였다는것이 밝혀졌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아버지장군님의 말씀을 무조건 따르는 마음으로 장군님의 안녕을 보장하시였습니다.

제 13 과
밤하늘을 지켜보시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모시고 어느 한 군관학교에서 하루밤 머무르실 때였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아버님의 신변안전을 생각하시며 좀처럼 잠들지 못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머님께서 아버님의 안전을 철저히 보위하라고 하신 말씀을 되새기시며 조용히 밖으로 나오시였습니다.

일군들은 왜 주무시지 않고 나오셨는가고 말씀올렸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오늘 낮에 겪은 일이 생각되여 잠이 오지 않아 나왔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이때 멀리 밤하늘가에서 적폭격기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한동안 그쪽을 바라보시다가 방공호는 어디에 있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일군들은 방공호의 위치를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과 함께 방공호에 가보시였습니다.

몸소 전지불을 비쳐가시며 그안의 구석구석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나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방공호안에 습기가 많다고 걱정하시였습니다.

이윽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방공호에서 나오시여 미제날강도놈들이 무슨 지랄을 할지 모른다고,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한 일군이 **김정일**대원수님께 밖의 일은 자기들에게 맡기고 어서 들어가 주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오늘 미국놈비행기가 야단치는것을 보지 않았는가고 하시였습니다. 그리시면서 그놈들이 아버님께서 가시는 길을 해

치려고 하는것 같은데 자신께서 어떻게 마음을 놓을수 있겠는가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이런 때일수록 어머님생각이 더 난다고, 이밤도 어머님과 함께 아버지장군님의 안녕을 지켰으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어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나는 어머님의 뜻을 받들어 아버님을 힘껏 돕겠습니다. 아버님의 안녕을 위해서는 백밤을 자지 않아도 일없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의 안녕을 그처럼 열렬히 바라시는 그 말씀에 일군들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의 먼곳을 바라보시며 오래도록 서계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신변안전을 위해 먼길의 피로도 잊으시고 한밤을 고스란히 지새우시였습니다.

제 14 과
아버님으로부터 받으신 권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최고사령부에 오신 후인 주체41(1952)년 7월 10일이였습니다.

이날 저녁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아버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작전실로 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윽토록 아드님을 바라보시다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느냐고 물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몸가짐을 바로하시며 《오늘은 할아버님의 생신날입니다.》라고 대답올리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옳다고 하시며 할아버지는 나라를 찾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신 참된 애국자이시였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할아버님께서 지으신 시 《남산의 푸른 소나무》를 잊지 않고있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여 힘있게 그 시를 읊으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아드님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며 시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있는가고 또 물으시였습니다.

《예, 〈지원〉의 사상이 담겨져있습니다. 〈지원〉이란 뜻을 멀리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드님의 대답을 들으신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할아버지의 뜻이였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이어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실 때 넘겨주신 권총 두자루를 밑천으로 삼아 조국의 해방을 이룩하였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통일독립을 이룩할 때까지 혁명을 계속해야 한다는 귀중한 말씀을 하시였습니다.

이윽고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붉은 천에 싸여있는 권총 한자루를 꺼내놓으시며 엄숙히 말씀하시였습니다.

《이 권총을 오늘 너에게 준다. 혁명의 계주봉으로 알고 받는것이 좋겠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아버님으로부터 권총을 정중히 넘겨받으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말씀을 이으시였습니다.

《혁명가는 일생동안 손에서 총을 놓지 말아야 한다.

총은 혁명의 승리를 담보해주는 방조자이라는것을 꼭 명심해라.》

총대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밝혀주는 참으로 뜻깊은 말씀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아버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한평생 이 총과 혁명을 같이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가슴에는 끝까지 총대를 틀어쥐고 혁명승리를 이룩할 굳은 결의가 넘쳐흐르고있었습니다.

제 15 과
최고사령부 작전실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함께 최고사령부 작전실에 계시였습니다.

앞에는 붉은 화살표들이 쭉쭉 뻗어간 작전도가 있었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지시봉으로 그것을 짚으시면서 우리 식의 전법에 대하여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원래 전법이라고 할 때에는 싸우는 전술과 방법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세가지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신 다음 그 세가지 문제에서 첫째는 아군을 잘 아는것이고 둘째는 적을 잘 아는것이며 셋째는 시간과 장소를 잘 아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잠간 말씀을 끊으셨던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아드님을 바라보시며 물으시였습니다.

《네 생각에는 전법을 잘 세우는데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것 같으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잠시 생각을 더듬으시다가 아군을 잘 아는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그전에 군사놀이를 할 때 누가 꾀가 있고 누가 겁이 없으며 누가 몸을 아끼지 않는가

하는것을 미리 알아두었다가 정황에 맞게 쓰군 했더니 늘 이기군 했다고 덧붙이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그렇지, 그래.》라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어 지금까지 전해져오는 이름있는 장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주로 자기 혼자머리로 전술을 짜내가지고 싸우느라고 하였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리시면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전사들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여 전술도 짜내고 싸움도 벌려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알았습니다, 언제나 우리 인민을 믿고 제 머리를 잘 쓰는것이 제일입니다라고 힘있게 대답하시였습니다.

그러자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그렇지,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 식 전법이고 제일가는 전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새기시려는듯 《우리 식 전법》, 《우리 식 전법》 이렇

게 거듭 되뇌이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최고사령부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으로부터 우리 식의 전법을 배우시였습니다.

제 16 과
없애버리신 돌부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최고사령부에서 생활하시던 무더운 여름 어느날이였습니다.

아침에 밖으로 나가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점심때가 되여오는데도 들어오지 않으시였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한 일군이 **김정일**대원수님을 찾아나갔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다니던 그 일군은 오솔길에서 부지런히 호미질을 하고계시는 **김정일**대원수님을 뵙게 되였습니다.

바삐 다가가보니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땀을 흘리

시며 길바닥에 뾰족이 내민 돌들을 파내고계시였습니다.

(저런 돌을 어디에 쓰려고 그러실가?)

그 일군은 의아한 눈길로 **김정일**대원수님께 돌을 파서 무엇에 쓰시려고 그렇게 애쓰시는가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돌이 필요하면 자갈무지에서 골라드리겠으니 어서 들어가시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환히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런게 아니예요. 돌이 필요한게 아니라 돌부리를 없애려고 그래요.》

뜻밖의 말씀에 그 일군은 놀랐습니다. 자기자신은 생각도 해보지 못한 일이였습니다.

그 일군은 **김정일**대원수님의 손목을 꼭 잡고 어떻게 돌부리를 없앨 생각을 다 하셨는가고 물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흘러내리는 땀을 닦으시며 일군에게 아침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시였

습니다.

그날 이른아침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김일성**대원수님을 모시고 이 오솔길을 걸으시며 이야기를 주고받으시였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이야기하시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문득 하시던 이야기를 채 끝맺지 못하신채 말씀을 끊으시였습니다. 길바닥에 올리민 돌부리에 그만 발끝을 걸채이신것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뾰족한 그 돌부리를 눈여겨보시였습니다. 아버님을 방해한 돌부리가 몹시 얄미우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 일이 못내 가슴에 맺혀 내려가지 않으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뒤로 미루시고 뾰족 내민 돌들을 파내기 시작하시였던것입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일군을 보시며 내가 왜 좀 더 미리 돌부리를 없앨 생각을 못했을가요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 일군은 뜨거움에 젖어 **김정일**대원수님을 우

리르며 대원수님의 일손을 도와드렸습니다.

돌부리들을 다 없애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 자리들에 부드러운 흙을 파다가 고르롭게 깔아놓으시였습니다.

그 일군은 **김정일**대원수님의 지극한 마음이 그대로 어려있는 오솔길을 오래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언제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안녕을 위하여 깊이 마음쓰시였습니다.

제 17 과
《조국의 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또다시 아버님 곁을 떠나 어느 한 곳에서 공부를 계속하시던 주체41(1952)년 8월 어느날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학급에서는 마을뒤산으로 식물채집을 하러 갔습니다.

학생들은 산에 오르자 평양의 모란봉생각이 났

던지 모란봉에 대한 이야기들을 펼쳐놓았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도 모란봉을 그려보시며 한 그루의 소나무결에 서신채 떠날줄 모르시였습니다.

이때 한 학생이 동무들에게 《아직도 모란봉에 이런 소나무가 그냥 있을가?》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동무들은 미국놈폭격에 모두 불타서 없을것이라고 하였고 또 어떤 동무들은 불에 타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그것이 말싸움으로까지 번져지자 학생들은 담임선생님에게 이야기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담임선생님은 정확한 대답을 줄수 없어 딱한 얼굴로 **김정일**대원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학생들의 눈길도 모두 **김정일**대원수님께로 쏠렸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을 둘러보시며 신심에 넘친 목소리로 말씀하시였습니다.

《모란봉의 소나무는 꿋꿋이 살아있습니다. 미국놈들은 아무리 발악해도 모란봉을 불태울수 없습니다.》

그러시면서 모란봉은 조국의 품속에 있다고 하시며 그런 모란봉이 어떻게 불탈수 있겠는가고 힘주어 말씀하시였습니다.

그 순간 담임선생님은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생각하는 품이 참으로 남다르시다는것을 다시금 느끼였습니다.

그날 저녁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낮에 있은 일들을 돌이켜보시며 《모란봉은 불타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일기를 쓰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였습니다.

《조국의 품은 어버이장군님의 품이다.

그러면 모란봉도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 솟아있지 않는가. 그런데 어떻게 불탄단 말인가.》

며칠후 담임선생님은 **김정일**대원수님의 일기장을 보게 되였습니다.

일기장에는 《조국의 품》이라는 제목의 가사 한편이 적혀있었습니다. 그 가사는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최고사령부에 계실 때 몸소 지으신것이였습니다.

모란봉에 붉게 타는 노을인가요
대동강에 곱게 비낀 무지갠가요
…
해빛처럼 밝고밝은 조국의 품은
아버지장군님 품이랍니다

담임선생님은 가사를 두번세번 읽었습니다. 나어린 **김정일**대원수님의 가슴속에 조국에 대한 그처럼 깊은 뜻이 굳게 자리잡고있는데 감동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날 밤 교실에서 풍금을 타시며 《조국의 품》가사에 곡을 붙이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준엄한 전쟁의 나날에 조국은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품이라는것을 더욱 심장깊이 간직하시였습니다.

제 18 과
우리 함께 가슴을 펴고 걸어가자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공부하시던 학교에 어느날 담임선생님의 녀동생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선원호대에서 싸우다 미국놈비행기폭격에 한쪽다리를 잃은 몸이였습니다.

여러해만에 만난 언니와 동생은 서로 부둥켜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언니는 불구가 된 동생을 보며 몹시 가슴아파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는 **김정일**대원수님의 가슴속에는 미제원쑤놈들에 대한 증오심이 세차게 끓어번지였습니다.

그럴수록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그늘 한점도 없이 해주고싶으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아지미라고 부르시면서 극진히 보살펴주시였습니다.

아침이면 세수물도 떠다주시고 식사때면 음식그릇들을 그의 앞에 밀어놓으시며 거듭 권하군 하

시였습니다.

그가 남몰래 괴로와할세라 저녁이면 동무들을 데리고오시여 오락회도 하시며 그를 즐겁게 해주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뜻밖에 그가 떠나려고 짐을 꾸린다는것을 알게 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급히 뛰여가시여 금방 문밖을 나서려는 그의 앞을 막아서시며 왜 가려 하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사실 그는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주시느라 공부할 시간을 빼앗기며 마음쓰시는것이 무척 죄송스러웠습니다. 생각하던 끝에 그는 떠나기로 마음먹고 대원수님께서 학교에 가신 사이에 짐을 들고 나선것이였습니다.

그의 마음을 헤아리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아지미가 지팽이없이 걸을수 있게 되기 전에는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고 하시며 손에 든 보짐을 잡고 놓아주지 않으시였습니다.

그는 **김정일**대원수님의 그 뜨거운 마음에 눈물

을 쏟고야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더 어쩌지 못하고 그냥 남아있게 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매일 그를 부축해주시면서 걷는 련습을 힘껏 도와주시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김정일**대원수님께서 그를 부축하시고 강가로 나가시였을 때였습니다.

오고가는 사람들의 눈길이 다리를 절고있는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얼굴이 붉어지며 집으로 들어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의 팔을 힘있게 잡으시며 말씀하시였습니다.

《미국놈들과 싸우다 부상당한것이 무엇이 부끄러워요. 조금도 부끄러울것이 없습니다.

자, 우리 함께 가슴을 펴고 걸어가자요.》

김정일대원수님의 보살피심속에 그는 드디여 지팽이없이 걸을수 있게 되였습니다.

몰라보게 건강해진 그는 **김정일**대원수님의 바래

움을 받으며 대학으로 떠나갔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미국놈들의 폭격에 한쪽다리를 잃은 선생님의 동생을 모든것을 다해 따뜻이 보살펴주시였습니다.

제 19 과
《제 이름은 **김정일**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주체41(1952)년 11월 22일부터 만경대혁명학원에서 공부하게 되시였습니다.

만경대혁명학원은 조국의 해방과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영용하게 싸우다 희생된 혁명렬사들의 아들딸들이 공부하며 생활하는 학교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학원의 웃학년 학생들은 인민군대에 입대하고 나어린 학생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보살피심에 의하여 후방에서 공부를 계속하고있었습니다.

이날 아침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에 접한 학원은 끝없이 흥성거렸습니다.

특히 **김정일**대원수님과 한학급에서 공부하게 된 소학반 4학년 학생들은 너무 기뻐 껑충껑충 뛰며 어쩔줄 몰라하였습니다.

선생님도 기쁨에 넘쳐 학생들에게 빨리 교실을 정돈하자고 일렀습니다.

이윽고 나어린 몇명의 학생들이 원장선생님의 안내를 받으며 교실 앞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느 학생이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자제분이실가?)

이런 생각을 하며 선생님은 씩씩한 걸음으로 다가오는 학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들속에는 가죽잠바를 입은 학생도 있었고 좋은 털모자를 쓰고 가죽구두를 신은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앞장에 서서 환한 미소를 담고 걸어오는 한 학생의 모습이 류달리 사람들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수수한 곤색솜옷차림에 학원 원아들처럼 롱구화를 신은 그 모습을 바라보던 선생님은 저도모르게 우뚝 멈추어섰습니다. 그분이 바로 **김정일**대원수님이시였던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있는 곳으로 마주 향해오시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머리숙여 인사를 하시였습니다.

《제 이름은 **김정일**입니다.》

선생님은 **김정일**대원수님께 이렇게 만나뵈우니 정말 기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선생님에게 앞으로 많이 배워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나서 교실에 들어서시여 학생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시였습니다.

잠시후 **김정일**대원수님을 모시고 밖으로 나온 원장선생님은 대원수님께 새 교사를 꾸린 다음에 와서 공부하면 안되시겠는가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교실조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곳에 대원수님을 모시는것이 마음에 걸렸던것입니다.

그러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였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다른 혁명가유자녀들과 꼭같이 학습하고 조직생활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결심이고 아버지장군님의 뜻입니다.

선생님들은 크나큰 감동에 휩싸여 **김정일**대원수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언제나 소박하고 겸손한 품성을 지니고계시였습니다.

제 20 과
한 학년을 뛰여넘으시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원에 오시여 3학년에서 공부하셔야 하였으나 4학년에서 공부하시였습니다.

이미 자체로 3학년 공부를 다하셨기때문이였습니다.

어느날 산수시간이였습니다.

담임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교과서의 련습문제번호들을 불러주면서 제힘으로 풀어보라고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고개를 수그리고 열심히 문제를 풀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쯤 시간이 흘러 담임선생님은 다 푼 학생이 있으면 손을 들라고 하였습니다.

서너명의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담임선생님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 덤비지 말고 잘 풀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일**대원수님 곁으로 다가가 아직 푸시지 못했는가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웃음을 지으시며 담임선생님에게 학습장을 내보이시였습니다.

학습장을 들여다보던 선생님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대원수님께서는 내여준 문제를 다 푸시고도 몇문제 더 푸시였던것입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속셈도 뛰여나게 잘하시였습니다.

한자리수, 두자리수는 물론 세자리수의 더하기

와 덜기, 곱하기와 나누기도 재빨리 해내군 하시였습니다.

어느날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세자리수의 더하기와 덜기에 대한 속셈을 하게 되였습니다.

세자리수에 대한 속셈은 그때가 처음이였습니다.

담임선생님은 긴장한 자세로 앉아있는 학생들을 바라보더니 주산을 놓으며 수자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수자를 빨리 부르는지 학생들은 얼마 안 가서 속셈을 더는 하지 못하고말았습니다.

이윽고 수자부르기가 끝났습니다.

선생님은 답이 얼마인가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대답하는 학생이 없었습니다.

이때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서시여 답을 부르시였습니다.

주산으로 계산한 답과 맞추어본 선생님은 《맞았습니다. 꼭 맞았습니다!》라고 하며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학생들은 감탄과 부러움에 찬 눈길로

김정일대원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업이 끝나자 학생들은 약속이나 한듯 **김정일**대원수님 두리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 복잡한 수자들을 속셈으로 척척 계산하셨는가고 하면서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밝게 웃으시며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였습니다.

속셈을 간단하고도 쉬운것부터 련습하여 점차 어렵고 복잡한것으로 올라가면서 해야 한다.

그러시면서 처음에는 두자리수를 련습하다가 나중에는 세자리수, 이렇게 하나하나 계단을 설정하고 꾸준히 하면 재미도 나고 속셈능력이 자연히 높아지게 된다고 하시였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한학년을 뛰여넘으시였지만 다른 학생들보다 더 공부를 잘하시였습니다.

제 21 과
특별할줄 알았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만경대혁명학원에서 공부하시던 어느날 점심시간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오늘 점심밥을 가지고왔는데 함께 먹자고 하시며 동무들과 식탁에 마주 앉으시였습니다.

학생들의 눈길은 모두 점심밥곽보를 푸시는 **김정일**대원수님의 손에 가 멎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들과는 다를거야…)

그러나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밥곽뚜껑을 여시는 순간 학생들의 눈은 둥그래졌습니다.

밥곽안에는 한쪽에 잡곡밥이 담겨져있고 다른 한쪽에 닭알 반쪽, 무우오가리찬, 고추장이 담겨져있었던것입니다.

그와는 달리 식탁에 차리기 시작한 학생들의 점심식사는 흰쌀밥에 고기국, 찬으로는 두부, 닭알볶음 …

학생들은 의문이 실린 목소리로 **김정일**대원수님

께 늘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가고 물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고 그래 특별할줄 알았니?라고 하시더니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였습니다.

나나 동무들이나 다 같지 다른것이 뭐가 있어.

우리 아버님이 장군님이라고 해서 특별한 생활을 할것이라고 생각하였니?

아버지장군님께서와 우리 어머님께서는 절대로 남다른 생활을 하지 않으시였어.

…

지금도 아버지장군님께서는 그렇게 생활하고계신다.

내가 최고사령부에 갔을 때 보니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잡곡밥에 김치, 산나물지지개, 부루 같은것으로 식사를 하시였어.

김정일대원수님의 말씀을 듣는 동무들의 가슴은 뜨거운 감동으로 젖어들었습니다.

그후 어느날이였습니다.

한 학생이 잡곡밥이 담긴 **김정일**대원수님의 밥곽을 보며 그래도 대원수님께서 잡곡밥이야 왜 잡숫겠는가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 학생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며 잡곡밥이 어쨌다고 그러니, 이런 잡곡밥도 먹어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증조할아버님께서는 나에게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공부도 잘하고 생활을 검소하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계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뜻을 받들어 언제나 수수하게 생활하시였습니다.

제 22 과
연필 한자루도 아껴써야 한다

어느날 수업시간이였습니다.

연필을 준비하지 못한 한 학생이 산수문제풀이를 하지 못하여 선생님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풀에 기분이 나빠진 그 학생은 휴식시간에도

풀이 죽어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였습니다.

이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다가오시더니 그의 손에 연필 두자루를 쥐여주시였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의 알락달락한 무늬에 맵시있게 깎은 연필들이였습니다.

너무 좋아 입을 다물줄 모르며 연필을 두손으로 꼭 감싸쥐던 그 학생은 문득 미안한 생각이 들었던지 연필쥔 손을 도로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연필을 그의 손에 다시 쥐여주시며 어서 받아, 나에겐 또 있어, 자, 이걸 가지고 다음시간부터 공부해라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 학생은 고맙다고, 잘 쓰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동무를 도와주는거야 응당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얼마전에 선생님이 나누어준 연필을 다 어떻게 했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그는 동무들과 연필튀기기놀음을 하여 심이 다

못쓰게 되였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연필이야 떨구기만 해도 심이 부러져 못쓰게 되는데 연필로 튀기기놀음을 하였으니 심이 견딜게 뭐냐고 나무람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일부 동무들은 아버지장군님의 크나큰 배려로 모든것을 다 보장받으며 공부하니 뭐나 귀한줄을 모르고 지내는것 같다고 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이으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놈들과 판가리싸움을 하고있어. 우리 인민은 모든것을 전쟁의 승리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렵게 살면서 싸우고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필 한자루, 종이 한장, 비누 한쪼박이라도 아껴써야 해.

며칠후 **김정일**대원수님의 필갑안을 보게 된 그 학생은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그안에 들어있던 여러가지 색갈의 연필들이 하나도 없었던것입니다.

그 대신 꽁다리연필에 붓대 같은것을 끼웠거나 종이를 말아서 쥐기 편리하게 만든것들만 있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꽁다리연필을 두고 몹시 감동된 학생들은 그후부터 연필튀기기놀음을 하지 않았으며 무엇이나 아껴쓰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학생들이 연필 한자루, 종이 한장도 아껴쓰도록 깨우쳐주시고 솔선 모범을 보이시였습니다.

제 23 과
5점의 총창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느날 학원동무들과 함께 화보를 보고계시였습니다.

전선소식과 후방소식을 담은 화보의 사진들을 보면서 동무들은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던 그들은 화보의 마지막장을 펼치며 갑자기 웃음을 거두었습니다. 그것은 화보의 마지막장

에 미제승냥이놈들이 인민들을 마구 죽이는 사진이 실려있었기때문이였습니다.

동무들은 자기들의 부모들을 학살한 원쑤놈들과 직접 맞선것만 같아 두주먹을 틀어쥐였습니다.

조국의 통일을 위해 싸웠다고 하여 아버지를 붙잡아 나무에 묶어놓고 총창으로 찔러죽인 날강도 미국놈들, 어머니와 어린 동생을 생매장하며 너털웃음을 짓던 승냥이놈들에 대한 증오심이 가슴마다에 끓어올랐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에게 미국놈들과 그 앞잡이놈들이 얼마나 악독하고 포악한 놈들인가고 격분에 넘쳐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멀지 않아 이놈들은 몽땅 녹아나고야말것이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자 동무들은 당장 달려나가 원쑤놈들을 쳐부시였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동무는 나이가 어리다고 공부만 하고있다가 언제 미국놈들과 싸워볼수 있겠는가고 하면서 당장 전선에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아무 말씀없이 그들을 지

켜보시다가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였습니다.

꼭 인민군대에 나가서 미국놈들과 싸워야만이 원쑤를 갚는것이 아니다. 학습을 잘하고 소년단생활을 잘하는것도 다 부모의 원쑤를 갚는 길이다. 학생인 우리는 5점의 총창으로 조국과 부모의 원쑤를 갚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말씀을 듣고 동무들은 지난 기간 하루빨리 군대에 나가 부모의 원쑤를 갚을 생각만 하면서 공부를 잘하지 않았던 자신들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어린 자기들에게 있어서 학습을 잘하는것이 곧 부모의 원쑤를 갚는 길이라는것을 너무도 모르고 있던 그들이였습니다.

며칠후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습전투를 힘있게 벌리기 위한 학급모임을 가지시였습니다.

대원수님께서는 모임에서 싸우는 조선의 소년단원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학습은 곧 전투이다, 원쑤와 싸워 이기기 위하여, 부모의 원쑤를 갚기 위하여 모두다 최우등생이 되자, 모두다 5점의 총창으로 조국과 부모의 원쑤를 갚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습니다.

동무들은 **김정일**대원수님의 힘찬 호소에 격동되여 미제원쑤놈들의 가슴팍에 복수의 총창을 박는 심정으로 학습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습니다.

그리하여 **《5점의 총창으로 조국과 부모의 원쑤를 갚자!》**는 구호밑에 모두가 학습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동무들에게 공부를 잘하는것이 부모의 원쑤를 갚는 길이라는것을 똑똑히 깨우쳐주시였습니다.

제 24 과
작문 《어머니》

어느날 오후 복습시간에 소학반 4학년 학생들은 어머니에 대한 글을 짓고있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작문을 지으라고 과제를 내주었던것입니다.

어머니가 있는 학생들은 옆동무에게 자기 어머니에 대한 자랑을 하며 부지런히 글을 써나갔습

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원쑤놈들에게 빼앗긴 학생들은 깊은 생각에 잠겨 선뜻 글을 짓지 못하고있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도 숙제장에 《어머니》라고 큼직하게 써놓으신채 오래도록 생각에 잠겨계시였습니다.

(하필이면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글을 지으라고 할게 뭐람…)

학급담임을 대신하여 교실에 들어간 생활지도선생님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시간이 얼마간 흐르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작문을 짓기 시작하시였습니다. 연필을 잡으신 순간부터 거침없이 글을 써나가시였습니다.

이튿날이였습니다.

학생들의 작문학습장을 한아름 안고 생활지도선생님을 찾아온 담임선생님은 정성껏 뚜껑을 해씌운 학습장을 내밀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이 작문을 보세요, 정말 훌륭한 작문이예요.》

첫눈에도 그것이 **김정일**대원수님의 학습장이라는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생활지도선생님은 학습장을 펼쳐들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시원시원한 글씨가 한눈에 안겨왔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써놓고보니 돌아가신 어머님이 사무치도록 그리워집니다.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이 커갈수록 우리 어머님은 이 세상에서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어머님이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계속하여 회령의 가난한 농가에서 탄생하신 어머님께서 어리실 때부터 모진 고생을 다 겪으신 내용을 쓰시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일제와 지주놈들을 때려부시지 않고서는 누구나 잘사는 세상이 올수 없다는것을 깨달으시고 **김일성**장군님을 따라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용감히 싸우신 이야기를 쓰시였습니다.

작문에는 해방후 어머님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받들어 한몸바쳐 일하신 내용도 담겨져있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어 다음과 같이 쓰시였습니다.

《어머님은 진정 한평생을 아버지장군님을 충성으로 받들어모시고 혁명과 동지들, 인민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신 강의한 조선의 어머니, 참으로 훌륭한 혁명가였습니다.

나도 어서 커서 어머님처럼 아버지장군님을 받들어 힘껏 일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어머님께서 못다 이루신 념원을 이 강산에 활짝 꽃피우겠습니다.

아, 어머니 나의 어머니！》

작문을 다 읽은 생활지도선생님의 두눈에서는 뜨거운것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어린시절부터 어머님을 따라배워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높이 받들어나갈 결심을 깊이 간직하고계시였습니다.

제 25 과
영웅이 되려면

함박눈이 펑펑 내리던 어느날이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교실에서 《로동신문》을 보시다가 동무들에게 한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였습니다.

천대와 멸시속에 살다가 해방후에야 행복한 생활을 하던 영웅이 인민군대에 나가 혼자서 수백명의 적들을 쏴눕히고 적비행기를 3대씩이나 박살낸 이야기였습니다.

두눈을 반짝이며 **김정일**대원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동무들은 연방 《야!》, 《야!》 하고 감탄하였습니다.

이때 문득 한 동무가 《나도 나이가 되였으면 지금쯤 인민군대에 나가 영웅이 되는건데…》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한 동무가 영웅은 누구나 다 되는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영웅은 우리하고 무엇인가 다른데가 있는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계시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누구나 잘 싸우면 영웅이 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영웅이 되자면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목숨바쳐 싸우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용감하고 대담하게 싸워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동무들은 저마다 군대에만 나가면 당장 영웅이 될듯이 기뻐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다가 지금 어떤 동무들은 자기가 학원에서 공부는 잘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군대에 나가면 영웅이 될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자기에게 맡겨진 학습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투장에 나가 생명까지도 바쳐야 하는 어려운 전투임무를 수행할수 있겠는가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말씀을 새겨들으며 몇몇 동무들은 머리를 숙이였습니다. 꼭 자기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 같았던것입니다.

사실 그때 일부 학생들은 자기는 공부를 좀 못하지만 군대에 나가면 꼭 영웅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 몸단련을 핑게로 놀음에만 정신을 팔다보니 학습성적이 높아지지 못하고있었습니다.

이날 학생들은 영웅이 되는 길은 학교시절에 공부를 잘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것을 깊이 깨닫고 맡겨진 기본임무인 학습을 잘하리라 굳게 마음다졌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동무들에게 영웅이 되려면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하여 자신을 준비해나가야 한다는것을 깨우쳐주시였습니다.

제 26 과
꼭 인민군대가 되여라

일찌기 원쑤놈들에게 부모를 빼앗긴 학원 원아들에게는 어서 커서 총을 틀어쥐고 원쑤놈들을 쓸어눕혔으면 하는것이 큰 소원이였습니다.

그래서 나어린 원아들은 짬짬이 나무권총이나 칼을 깎아가지고 놀며 자기들의 희망을 총과 칼에 담군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습니다.

이날도 한 학생은 호실에서 부지런히 나무권총을 깎고있었습니다. 며칠째 깎아 이제는 거의 완성되게 되였습니다.

이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호실에 들어서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하고있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그는 나무권총을 만든다고 하면서 대원수님께 그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나무권총을 드시고 하나하나 살펴보시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아주 신통하게 잘 만들었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총알》이 얼마나 나가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그는 《총알》이 대여섯발자국밖에 못 나가는

데 고무줄을 세게 하면 좀더 나가게 할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환히 웃으시며 동무가 총에 대해 대단히 흥미를 가지고 늘 연구하며 만들고있는것을 보니 아마 이다음에 인민군대가 되고 싶은 모양이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는 어서 커서 인민군대가 되고싶다고 하면서 진짜총을 메고 아버지, 어머니를 학살한 미제승냥이놈들을 막 쏴갈기는것이 자기의 소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잡으시고 꼭 인민군대가 되여라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아버지장군님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손에 무기를 잡고 아버지, 어머니의 원쑤를 갚아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계속하시여 우리는 이 세상에 제국주의가 있는 한 손에서 무기를 놓을수 없다, 동무는 꼭 인민군대가 되여 우리 조국을 튼

튼히 지켜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자면 공부도 잘하고 소년단조직생활에서도 모범이 되며 체력도 튼튼히 단련해야 한다고 거듭 일러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학원 원아들의 가슴속에 훌륭한 인민군대로 자라나 조국과 부모의 원쑤를 갚을 굳센 마음을 키워주시였습니다.

제 27 과
자진하여 받으신 분공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학원에서 공부하신지 얼마 되지 않은 12월 어느날이였습니다.

이날 분단위원장을 찾아오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자신에게도 분공을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고 하시였습니다.

순간 분단위원장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분단에는 자진하여 분공을

받는 소년단원은 한명도 없었습니다. 또 개별분공을 받지 않고있는 소년단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원생활을 갓 시작하시였지만 스스로 벽보발간을 비롯하여 분단사업을 하나하나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도 자신에게 분공을 줄데 대하여 말씀하시니 분단위원장은 감동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분단위원장은 **김정일**대원수님께 분공을 따로 받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였습니다.

나도 분단에 속한 소년단원인데 분공을 받아야 한다.

소년단원은 응당 소년단조직으로부터 분공을 받아 집행해야 한다.

소년단원은 분공을 받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을 더 단련하게 되고 수양하게 된다.

김정일대원수님의 말씀을 받아안으며 분단위원장은 자기의 사업을 돌이켜보았습니다.

그때 분단위원장은 분공조직을 잘 짜고들지 못

하였습니다. 그의 이런 결함은 분단의 조직생활강화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있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에게 분단에서는 소년단원들이 누구라없이 분공을 받고 움직이게 해야 한다고 따뜻이 말씀해주시였습니다.

잠시후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지금 동무들이 신문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라지오도 제대로 듣지 못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리시면서 자신께서 전선소식과 세계정세 같은것을 제때에 알아서 동무들에게 알려주는 분공을 맡아하면 어떤가고 물으시였습니다.

분단위원장은 뜨거운 마음을 안고 **김정일**대원수님께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밝게 웃으시며 앞으로 분공을 자주 주기 바란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다음날부터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날마다 전선과 후방소식, 세계 여러 나라 정세를 동무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전쟁승리에 대한 신심을 북돋아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분공을 자진하여 받으시면서 소년단조직생활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였습니다.

제 28 과
벽보의 방향을 밝혀주시며

새해가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던 어느날이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과 다음해 1월호벽보를 만들기 위한 모임을 가지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새해 첫호벽보를 어떻게 만들면 좋겠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이때 한 동무가 자리에서 일어나 1월호벽보를 우리들이 새해를 뜻깊게 맞이하는 내용으로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벽보의 기본그림은 동해에서 아침해가 솟는 장면을 주었으면 좋을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한 동무가 일어나 동해에서 아침해가 솟는 장면을 그리고 그옆에 새 교사를 그려넣었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동무들의 이야기를 듣고계시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1월호벽보에 새해 첫아침을 맞으며 아버지대원수님의 안녕을 축원하여 새해인사를 드리는 학생들의 마음을 담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을 둘러보시며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설날이 오면 학원에 찾아오시여 학원 학생들과 함께 설을 보내군 하시였고 학원 학생들은 설날이 오면 아버지장군님께 건강을 축원하는 인사를 드리군 하였다고 뜨거움에 젖어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미국놈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하여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것이 가슴아프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래서 벽보를 통해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자는것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습니다.

동무들은 **김일성**대원수님을 자나깨나 그리며 높

이 받들어모시려는 **김정일**대원수님의 충실성에 가슴이 후더워올랐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계속하시여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였습니다.

여러 동무들이 동해의 해돋이를 1월호벽보의 주화로 하자고 했는데 나는 백두산의 해돋이로 하자는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의 새날은 혁명의 홰불이 타오른 백두산에서부터 밝아온다고 보아야 합니다.

백두산의 해돋이는 장엄하고 뜻도 깊다고 생각합니다.

《야! 백두산의 해돋이!》

동무들은 저도모르게 이렇게 웨치며 자리에서 일어나 힘껏 박수를 쳤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밝은 웃음을 지으시며 동무들을 자리에 앉히시였습니다.

그러신 다음 벽보의 웃부분에 《아버지 **김일성**장군님께 새해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라는 인사글을 크게 주자고 하시였습니다.

동무들은 또다시 그렇게 하는것이 좋겠다고 찬성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가르치심에 의하여 새해의 첫 벽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안녕을 축원하는 학생들의 뜨거운 마음이 담긴 벽보로 되게 되였습니다.

제 29 과
아버지의 뜻을 이으라고 하시며

학원 학생들의 겨울방학이 시작된 주체42(1953)년 1월 어느날이였습니다.

늘 장난이 세찼던 한 학생은 어머니가 없는 틈을 타서 아버지가 쓰던 권총과 기관단총을 꺼내놓고 장난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는 방바닥에 엎디여 뚜루룩뚜루룩 총쏘는 흉내를 내다가는 허리에 권총을 척 늘어뜨려차고 여기저기다 《땅》, 《땅》 입총을 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뜻밖에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그의 집 문을 열고 들어서시는것이였습니다.

그 학생은 너무 당황하여 장난하고있던 총을 얼른 몸뒤로 가져갔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환히 웃으시며 무엇을 감추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그 학생은 슬그머니 권총과 기관단총을 앞에 내놓았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가 내놓은 총을 찬찬히 살펴보시였습니다.

그러시다가 이 권총은 너의 아버지가 일제놈들과 싸울 때 쓰던것이고 이 기관단총은 인민군대에서 쓰던 총이 아닌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머리를 끄덕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권총을 손에 드시고 정말 오래된 총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잠시후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너의 아버지는 이 총을 잡고 투쟁하다가 돌아가셨다, 너는 더 큰 다

음에 혁명의 총을 잡고 아버지처럼 원쑤놈들과 싸워야 한다, 그래야 아버지의 뜻을 이을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 학생은 **김정일**대원수님의 말씀대로 이 총을 가지고 아버지의 원쑤를 꼭 갚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총의 어지러워진 곳을 보시고 총은 언제나 녹이 쓸지 않게 거두어야 한다고 타이르시였습니다.

그리시고는 그 학생에게 총을 다루는 방법과 총쏘는 방법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이윽고 자리에서 일어서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 권총과 기관단총은 정말 귀중한 무기이다, 장난감처럼 가지고놀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 총을 보면서 아버지처럼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는 훌륭한 사람이 될 생각을 하여야 한다고 거듭 일깨워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혁명가유자녀들이 혁명의 총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부모들의 뜻을 이어나가는 훌륭한 혁명가로 자라나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제 30 과
《놀기만 하라는 방학이 아니다》

방학을 맞은지 닷새째 되는 날이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알아보시기 위하여 모두 일기장과 숙제장을 가지고 모이게 하시였습니다.

그때 집이 학원가까이에 있는 여러명의 학생들은 자기 집에서 방학을 보내고있었습니다. 그들가운데는 2학년에 다니는 어린 소년도 있었습니다.

련락을 받자 2학년에 다니는 소년은 가슴이 철렁하였습니다.

며칠째 숙제도 안하고 일기도 쓰지 않았기때문이였습니다.

어머니가 숙제를 하지 않는다고 꾸짖을 때마다 그는 실컷 놀다가 방학마지막때에 가서도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하군 하였던것입니다.

소년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김정일**대원수님께서 공부하시는 방으로 갔습니다.

벌써 동무들이 모두 모여있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3학년에 다니는 학생의 숙제장부터 먼저 보시였습니다.

2학년에 다니는 소년은 방안 한쪽 구석에 앉아 무릎우에 일기장을 펼쳐놓았습니다. 다문 하루일기라도 써넣으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가 막 일기를 쓰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이제 와서 뭘 쓰려고 그러니, 가만히 앉아있어라라고 하시는 **김정일**대원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흠칫 놀라며 얼른 일기장을 덮어버렸습니다.

3학년 학생의 숙제장을 보시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왜 글씨도 곱게 쓰지 않고 숙제도 다하지 않았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못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2학년 소년의 숙제장과 일기장은 보려고도 하지 않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너때문에 너의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는가고 하시면서 왜 숙제를 안했는지 어디 좀 말해보라고 엄하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소년은 머리를 숙인채 아무 대답도 드리지 못하

였습니다.

숙제를 다하지 못한 다른 학생들도 머리를 숙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들을 둘러보시며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였습니다.

너희들이 숙제도 안하기때문에 어머니들이 무척 걱정하고있다. 방학기간이라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학생이니? 놀기만 하라는 방학이 아니다. 방학기간이지만 매일 꼭꼭 숙제도 해야 하고 일기도 써야 한다.

그러시면서 이제 3일후에 숙제검열을 다시 하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날부터 그 소년의 집에 찾아가시여 숙제를 잘하도록 따뜻이 돌봐주시였습니다.

어느덧 3일이 지나갔습니다.

숙제도 다하고 일기도 다 쓴 학생들은 기쁜 마음으로 **김정일**대원수님께 저저마다 학습장을 보여드렸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그것 보아라, 숙제를 제대로 하니 마음이 편안한것이 얼마나 좋

니? 앞으로 숙제를 제때에 꼭꼭 제대로 해야 한다, 그래야 훌륭한 소년단원이 될수 있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신 다음 학생들의 숙제장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며 틀린 점을 깨우쳐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학생들이 방학기간에도 학생의 기본임무인 학습을 잘해나가도록 제때에 깨우쳐주시고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제 31 과
자기의것을 사랑해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보살피심속에 그림그리는 재능을 키운 한 동무는 어느날 풍경화를 그리고있었습니다.

이때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다가오시여 이미 그려놓은 여러장의 풍경화를 보아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림그리는 재간이 퍼그

나 늘었다고 하시면서 이 그림들이 어느 나라, 어느 지방의 풍경화인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그는 다른 나라 화보들에서 보고 그린것들인데 어느곳의 풍경화인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잠시 아무 말씀없이 계시다가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런데 동무는 그림을 그리기 전에 자기의것을 사랑하는 정신부터 가져야 하겠다. 자기 인민, 자기 조국산천, 자기의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진정한 미술가가 될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때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큰 나라의것은 무턱대고 좋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있었습니다.

그들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어도 다른 나라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기를 좋아하고 그림도 다른 나라의 그림만 좋은것처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무도 다른 나라 잡지에 난 그림만 그리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것을 모르고있었던것입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뒤늦게나마 자기 잘못을 깨닫고 머리를 수그리는 그의 어깨우에 다정히 손

을 얹으시며 우리에게도 좋은 그림감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남의 나라것만 본따그리면 나중에는 자기의것을 볼줄 모르고 귀중히 여길줄 모르는 머저리가 되고만다고 하나하나 일깨워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어 옆에 서있는 동무들을 가리키시며 우리곁에도 얼마나 끌끌한 동무들이 있는가, 아버지장군님께서 지어주신 멋진 원아복을 입은 동무들의 모습을 그림에 담는다면 좋은 그림이 될것이라고 하시며 밝게 웃으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풍경을 그리려면 아름다운 평양의 모습을 그릴수 있을것이며 경치좋은 만경대와 모란봉, 맑은 물이 청류벽을 감돌아흐르는 대동강을 그려도 참 좋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는 **김정일**대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자기의것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길줄 아는 참된 미술가가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듯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하나의 그림을 놓고도 동무들의 가슴속에 자기의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주시였습니다.

제 32 과
마음먹기탓이다

겨울방학때의 어느날이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아침 일찍 동무들과 함께 얼음판쪽으로 걸음을 옮기시였습니다.

그러시더니 오늘은 우리모두 재미있게 놀자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자 **김정일**대원수님 옆에서 걷고있던 한 동무가 스케트를 타면서 놀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동무들은 스케트가 없는데 어떻게 스케트를 타겠는가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되지도 않을 소리는 하지도 말라고 한마디씩 하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우리 한번 나무스케트를 만들어보자고 하시였습니다.

《아니, 나무스케트를？》

동무들은 어리둥절해졌습니다.

한 동무가 **김정일**대원수님께 스케트를 만들자면 필요한것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맨손만 가지고 어떻게 만들겠는가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들을 둘러보시다가 여기에 있는 많은 동무들의 힘과 지혜를 합친다면 그런것은 문제로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이으시였습니다.

인민군대아저씨들은 불타는 전호가에서 적들의 악착스러운 공격을 하루에도 여러차례씩 물리치면서도 싸움의 여가시간에 화선악기까지 만들어 리용하고있다.

우리도 힘을 합쳐 만들자. 제가끔 가서 판자, 못, 쇠줄 같은것을 얻어오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말씀에 신심을 얻은 학생들은 와 - 하고 제각기 헤쳐져갔습니다.

얼마후 그들이 한두가지씩 가져온것을 모아놓으니 별의별것이 다 있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만하면 준비가 잘됐다고 하시며 모두 달라붙어 스케트를 만들자고 하시

였습니다.

그러시고는 판자에 발을 대고 본을 따서 톱질을 하게 하신 다음 스케트날과 비슷한 철판쪼각을 고르시여 그밑에 붙이시였습니다. 그리고 발판옆에 못을 드문드문 박아 끈으로 발을 동여맬수 있게 하시였습니다.

잠간사이에 첫 나무스케트가 완성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스케트를 제일 잘 타는 동무에게 그 나무스케트를 신겨주시고 손잡아 일으켜주시며 한번 타보라고 하시였습니다.

얼음판에 선 그는 몇번 발을 놀려보더니 제법 씽씽 앞으로 지쳐나갔습니다.

《야! 야!》

《멋있는데…》

학생들은 너무 기뻐 박수를 치며 환성을 올렸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기쁨에 넘쳐있는 동무들을 바라보시며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였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마음먹기탓이다. 혼자서 하기 힘든 일은 여러 사람이 힘과 지혜를 합쳐 하면 된다.

이 말씀은 동무들의 가슴을 크게 울려주었습니다.

이날 동무들은 여러개의 스케트를 만들어가지고 타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동무들에게 무슨 일이든지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해낼수 있다는것을 실천으로 깨우쳐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어린시절
(소학교 제3학년용)
제3판

집 필 부교수 김광수,
부교수 리정호
심 사 심의위원회
편 집 신호철
콤퓨터편성 정봉순
장 정 강철훈
교 정 오혜란

낸 곳 교육도서출판사
인쇄소 교육도서인쇄공장

2판발행 주체98(2009)년 8월 24일
3판인쇄 주체101(2012)년 2월 15일
3판발행 주체101(2012)년 2월 25일

교—11-보-183
값 원